

중국 저장(浙江) 여행가이드

China Zhejiang Tour Guide

중국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을
저장(浙江)
이 핸드북이
리드해드릴게요

02

중국 저장(浙江) 여행가이드

China Zhejiang Tour Guide

중국 여행의
아름다운 순간을
저장(浙江)
이해드릴게요



浙 江 省



저장(浙江, ZHEJIANG)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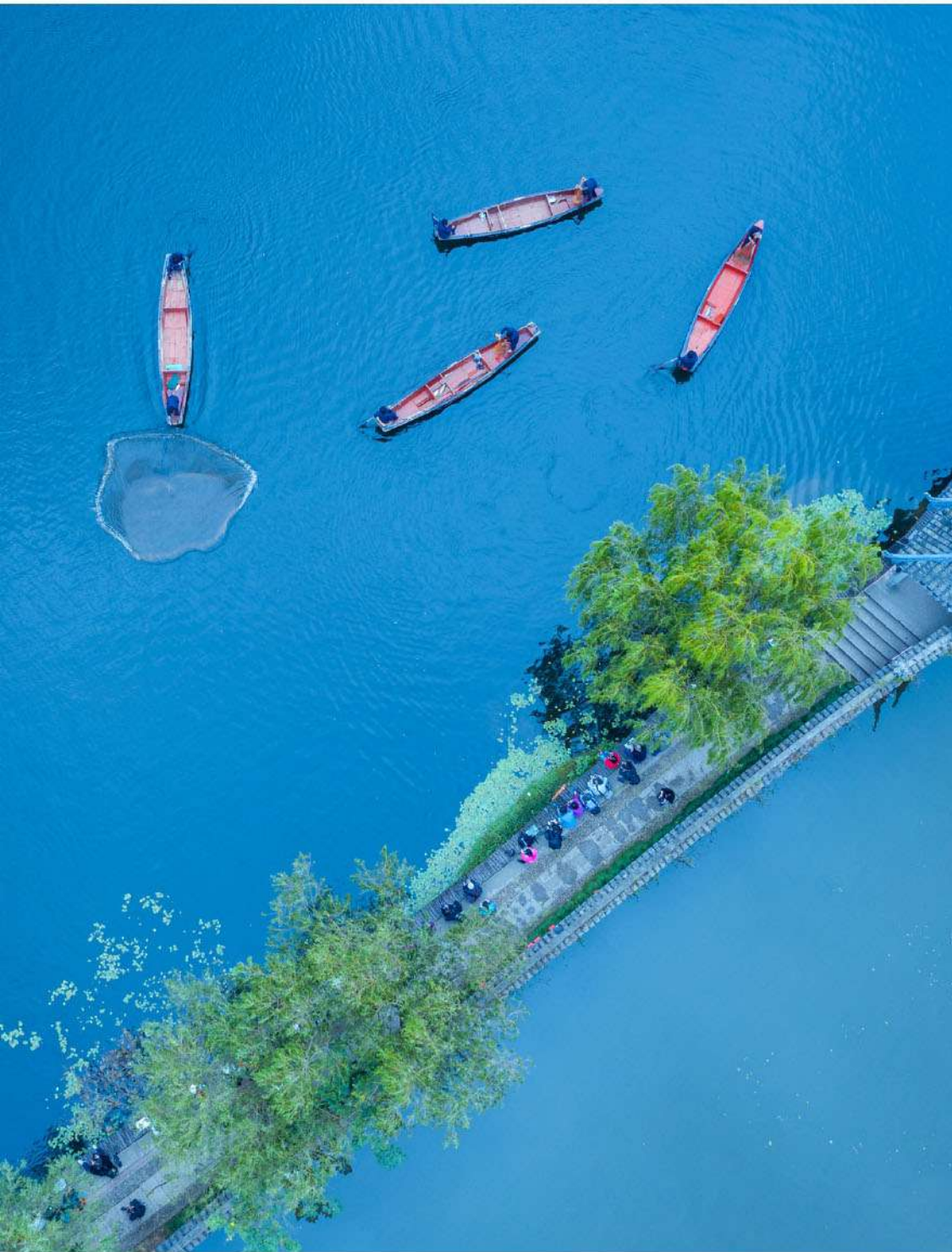
저장성의 명칭은 성도인 항저우(杭州)를 지나 항저우만으로 흘러드는 첸탕강의 다른 이름인 저장강에서 유래했다. '저(浙)'란 강물이 급하게 '꺾여(折)' 흐른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고유명사이며, 특히 항저우를 지나는 구간은 '갈지(之)'자 모양으로 꺾여 흐른다고 해서 '즈장(之江)'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저장성은 북쪽으로 상하이 시와 장쑤성, 서쪽으로는 안후이성과 장시성, 남으로는 푸젠성과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바다와 면하고 있으며 항저우만은 중국 최대의 해만(海灣)이다. 3000여 개의 도서가 속해 있어 중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성이다. 저우산 군도의 주 섬인 저우산 섬은 하이난 섬, 충밍 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전 성 면적의 70%가 산지와 구릉으로 산악 지형이 성 전체에 분포한다. 대부분 지역은 해발 200~1000m 사이에 위치한다. 주요 평원은 성 북부 항저우-자싱-후저우 지역의 평야로 창강 삼각주 평원의 일부를 이룬다. 그밖에 해안 지역과 주요 하천 유역에 평야와 분지가 분포한다. 첸탕강, 어우강이 주요 하천이며 항저우의 서호(西湖, 시후)가 대표적 호수다.

저장성은 춘추시대에는 월(越) 나라의 영토였고,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에 이르러 저장성(浙江省)이 설치됐다. 저장성의 면적은 10만여km²로 행정구역은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원저우(溫州), 자싱(嘉興), 후저우(湖州), 사오싱(紹興), 진화(金華), 취저우(衢州), 저우산(舟山), 타이저우(台州), 리수이(麗水) 등 11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紹興

사오싱(소흥)_ 운하로 연결된 물의 도시

사오싱(紹興)은 도시 전체가 운하로 연결돼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다. 춘추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수도로 번성했던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라서 볼거리가 풍부하다. 최근에는 월나라 왕릉이 발견돼 고고학적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오싱의 대표 관광지로 동호(东湖, 동호), 커옌(柯岩, 가암지구, 란팅(兰亭, 난정), 쿠에지(会稽, 회계)산 지구 등이 있다. 또 사오싱은 중국 8대 명주 중 하나인 사오싱주(紹興酒, 소흥주)의 산지로 유명하다.

사오싱은 중국의 사상가이자 <아큐정전(阿Q正傳)>을 쓴 대문호 루쉰(魯迅, 노신)의 고향이기도 하다. 때문에 사오싱에 왔다면 루쉰이 태어나고 자란 고택을 꼭 둘러볼 것을 권한다. 루쉰의 산문 <백초원(百草園)에서 삼미서옥(三味书屋)까지>에 등장하는 백초원과 삼미서옥이 여전히 남아 있고, 단편 <공을기(孔乙己)>에서 주인공이 먹었던 회향두(茴香豆)와 그가 갇지 못한 외상값 19푼을 알리는 글귀까지 루쉰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루쉰 외에도 사오싱은 중국의 영원한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 주은래), 여성 혁명가 치우진(秋瑾, 추진), 중국 현대 교육의 상징인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채원배) 등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다.

Tour Point

물 위에서 즐기는 월극(越劇)



도심 곳곳이 운하로 연결된 사오싱에서는 부두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배를 타고 호수 위를 거닐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전통극인 월극(越劇) 관람을 곁들이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며 서정적인 노랫소리가 일품인 연극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마 동호(东湖, 동호)의 수상 무대가 유일하지 않을까. 물길을 따라 흐르는 배에 앉아 향긋한 사오싱주를 마시며 월극을 감상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하다.

사오싱만의 특별한 타이먼(台門, 대문) 문화



사오싱을 찾는 관광객들은 '타이먼(台門)'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사오싱에서는 가족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이를 타이먼이라 부른다. 사오싱의 옛 거리에서 서너 걸음만 걸으면 이런 타이먼을 하나씩 볼 수 있다. 타이먼 안에는 거주하는 세대가 꽤 많은데,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하고 이웃끼리 삼삼오오 수다를 떨기도 하며 집안 살림을 한다. 사오싱고성(绍兴古城)에서 규모가 가장 큰 타이먼은 아마 루쉰의 고택이 있는 저우지타이먼(周家台門)일 것이다. 최근엔 숙박시설로 개조한 타이먼도 생겨나 관광객도 타이먼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됐다.



사오싱박물관(紹興博物館) ↑

사오싱박물관은 사오싱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곳으로 사오싱고성의 서쪽에 있는 월왕성 역사문화보호구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 본관은 사오싱에서 출토된 문화유물인 지러(伎乐, 기락) 청동 가옥 형태를 띠고 있다. 대문 앞 광장에는 고대 청동검 모양의 조형물이 서 있는데, 이곳이 바로 관광객들의 포토존이다. 상설 전시로는 사오싱의 부상, 도시의 건설 등이 있으며 오나라와 월나라 시대의 역사를 말해주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다.



루쉰(魯迅, 노신)기념관 ↑↓

루쉰기념관은 루쉰고향풍경구에 위치해 있다. 루쉰고향풍경구는 루쉰과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기념관 이외에 루쉰의 작품 <공을가>에 언급된 함향호텔(咸亨酒店), 백초원(百草园), 삼미서옥(三味书屋)이 들어서 있다. 또 루쉰풍정원(魯迅笔下风情园), 장경사(长庆寺), 토곡사(土谷祠), 항제당(恒济堂), 정수암(静修庵) 터 등 루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소가 많다. 추천 코스로는 루쉰이 어릴 적 공부한 서당인 삼미서옥(三味书屋), 루쉰가옥(周家新台门), 백초원, 루쉰풍정원(魯迅风情园), 루쉰기념관, 창이루쉰(长—魯迅)문화광장을 순서대로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중국황주박물관(中國黃酒博物館) ↓

사오싱 지역에서 나오는 황주는 중국 8대 명주 중 하나로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한다. 이곳의 황주 양조 기술은 국가 무형 문화재 보호 대상 제1호에 속한다. 이러한 황주의 양조기술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약 3,000평 규모의 황주박물관이 세워졌다. 박물관은 황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정수를 다양한 전시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사진 신청하면 시음과 개인 맞춤형 와인 라벨 제작이 가능하다. 전시장과 체험장 이외에도 찻집, 레스토랑, 쇼핑몰 등 레저 시설이 있다.



저우언라이(周恩来, 주은래) 본적 ←

사오싱이 배출한 저명인사로 저우언라이를 빼놓을 수 없다. 본적 안에는 저우(周) 총리의 생애를 소개한 저우씨(周氏) 가보를 비롯해 아내 덩잉차오(鄧英超, 등영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 일부 역사적 사건의 서술, 그리고 저우 총리가 쓰던 식기와 옷가지 등이 있다.



란팅(兰亭, 난정) →

동진(東晉) 시대 서예가 왕희지(王羲之)가 바로 이곳에서 천하 제일의 행서로 불리는 <난정서(蘭亭序)>를 집필했다.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풍경이 수려해 옛 문인과 선비들이 굽이굽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문학을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난정문 앞에는 '아지(鵝池)'라는 두 글자를 볼 수 있다. 평소 왕희지가 거위를 좋아했는데, '아'자는 남방사람들의 아름다운 성품이 깃들여져 있고 '지'에는 북방인 남양(南洋)의 거침없음과 호탕함이 깃들여져 있다. 이는 왕희지와 그의 아들 왕헌지(王獻之)가 함께 썼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부자비(父子碑)'라고 부른다.



丽水



리수이(여수)_고풍스러운 옛 시골 마을의 정취

대자연 속 시골 마을의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삶을 원하고 싶다면 리수이(丽水)가 제격이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비롯해 오래된 청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옛길과 이색적인 복도식 이랑차오(倚廊桥, 이랑교)를 거닐며 호젓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리수이청위엔(丽水庆元, 여수경원)은 지역 곳곳에 다리가 많아 랑차오(廊桥, 랑교) 여행을 테마로 특색 있는 다리를 하나씩 찾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리수이는 저장 지역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풍속적인 전통 민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송양(松阳)현의 횡강마을(横岗村), 산하양마을(山下阳村), 소죽계마을(小竹溪村), 수창현(遂昌县)의 대가마을(大柯村) 등이 대표적인 옛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다. 이 마을들은 풍수에 맞게 산을 등지고 계곡을 가까이에 형성됐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계곡 주변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논밭 길이 펼쳐지고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정겹다.



여족풍정(畲族风情): (여족, 중국 저장성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

동서암각(东西岩脚)은 거대한 바위와 산, 폭포를 품고 있는 관광명소다. 이곳은 사계(沙溪), 도롱원(道弄源), 황람(黄蓝) 등 세 여족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여족 풍속을 보존하고 복원해 매년 음력 3월 3일, 9월 9일, 8월 15일은 여가축제(畲家)가 열린다. 이 때엔 여가(畲家)의 남녀노소가 전통 복장을 갖추고 노래와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긴다.



셴두(仙都, 선도) ↑

당 현종이 '신선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선도라고 이름한 이곳은 우뚝 솟은 바위봉과 그 주변을 감싸는 푸른 강물, 운무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천혜의 풍광이 아름다워 중화민족의 시조인 현원(轩辕) 황제가 이곳에서 도를 닦아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주요 관광지로 정호봉(鼎湖峰), 구곡연계(九曲练溪), 십리화랑(十里画廊) 등이 있다.



윈허(云和, 운화)제전 ←

화동지구 최대의 계단식 논밭으로 고산, 구릉, 골짜기 등 각기 다른 지질에 펼쳐진 최대 700여 층이 장관을 이룬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식 논밭'으로 불리며 산기슭을 빙 둘러 겹겹이 쌓인 모습이 마치 흐르는 물이나 구름 같다. 사시사철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윈허제전이지만 특히 늦봄과 초여름이 되면 땅 위에 초록빛 구름바다가 펼쳐진다.

청위안랑차오(庆元廊桥, 경원랑교) →

복도식 다리를 뜻하는 랑차오(廊桥, 랑교)는 세계 교량 건축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길 만큼 독특함을 자랑한다. 옥교(屋桥), 풍우교(风雨桥)라고도 불리는데 다리 위에 낭채(廊屋)를 지은 특수 교량으로 나무아치(木拱), 평랑(平梁), 돌아치(石拱)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나무아치는 중국 전통 목조교량 중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으로 교량 중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리수이에는 1,100년의 비바람을 견딘 134개의 낭교가 보존돼 있는데, 이 중 경원(庆元)지구에만 88개의 낭교가 있다. 덕분에 경원이 '낭교박물관(廊桥博物馆)'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衢 州



취저우(구주)_공자의 가르침이 깃든 마을

취저우(衢州, 구주)는 국가 역사문화의 명소다. 취저우는 동한 초 평3년(192년)에 건축되기 시작해 약 6,000년의 문명사와 약 1,800년의 건축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미 5~6만 년 전부터 인류의 주요 활동지역 중 하나였고 중국 강남의 첫 번째 고성이다. 바둑 문화의 발원지로 알려진 취저우는 취저우부(衢州府) 성벽, 천왕탑원(天王塔院), 원창거(文昌閣, 문창각) 등 유적지가 많아 역사적인 도시다. 특히 커청(柯城, 가성)의 '구화립춘제(九华立春祭)'를 대표로 하는 중국의 24절기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무엇보다 취저우는 성자(聖者)로 불리는 공자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이다. 또 위인 마오쩌둥(毛泽东, 모택동)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관광지로 건궁포귀(根宮佛国, 근궁불국)문화관광지구와 저장성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장량(江郎, 강량산)이 있다. 취저우는 원래 중국 국내 4개의 성(省)으로 통하고 5갈래의 도로의 시발점이라는 뜻의 '사성통구(四省通衢), 오로총두(五路总头)'로 불리던 곳으로 중국 국경 내 항공, 철도, 도로, 수운이 완비돼 교통이 편리하다.

건궁포귀(根宮佛国, 근궁불국) 문화관광지구 →

북쪽에는 고궁(故宫)이 있고 남쪽에는 근궁(根宮)이 있는 근궁불국은 자원을 탐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문화관광단지다. 나무 뿌리, 원목을 비롯해 규화목과 탄화목 같은 화석목으로 만든 조각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박물관과 불교 조형물 전시장을 갖춘 테마 공원이다. 총면적 3.03㎢(약 90만 평), 4.5억 위안(한화 약 76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중국의 고전과 역사, 불교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 2만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콩스난중지야마오 孔氏南宗家庙 공씨 남종가묘

중국에 딱 두 곳뿐인 공씨 남종가묘 중 하나는 산둥성 취푸(曲阜, 곡부)에 있고 하나는 이곳 취저우에 있다. 취저우는 공자 후손들의 제2의 고향으로 취저우의 남종 공씨가묘는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까지 유학자의 기풍이 전해지고 있는 취저우에는 매년 9월 28일에 '남종제공(南宗祭孔)'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 이 날은 전 세계 유학 문화 전문가와 교수, 공자의 후손들이 모여 유학문화에 대한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장량(江郎, 강량산) →

장량산은 저장성 장산(江山, 강산)시 서남부 선하산맥(仙霞山脉) 북쪽 기슭 푸젠(福建), 저장(浙江), 장시(江西) 등 3성 경계에 위치해 있다. 주봉의 높이가 해발 819.1m로 노을이 질 때면 웅장하고 기이한 풍경이 동남쪽을 수놓는다는 찬사를 받는다. 장량산에는 꼭 봐야 할 3대 절대절경이 있는데 '삼월석(三月石)' '일선천(一线天)' '랑봉천유(郎峰天游)' 등이 그것이다.



취저우 고성벽(衢州古城墙) ←

취저우고성(衢州古城)에는 '궁성(宮城)과 외곽(外郭) 두 부분이 있다. 저장성 서부 교통의 요충지인 취저우는 동문, 북문, 대서문, 소서문, 대남문, 소남문 등 6개의 성문을 가지고 있다.

수이팅먼(水亭门, 수정문) 역사문화거리 →

수이팅먼 고대거리는 취저우성 내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고대거리 구역 내에는 불당(庙宇)과 사당(宗祠), 회관(会馆), 성루(城楼), 유적(古迹) 및 수많은 전통 민가가 흩어져 있다. 취저우에서 보존이 가장 온전하고 옛 성곽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고대거리다. 수이팅먼은 대서문(大西门), 조경문(朝京门)이라고도 불리며 취저우에서 손꼽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옛 성문이다.



金华



진화(금화)_ 시간이 멈춘 천년 도시

진화(金華, 금화)의 옛 이름은 우저우(婺州, 무주)다. 창장(長江, 장강) 삼각주 중심구역 27성의 하나로, 진시황 25년(기원전 222년)에 건설됐다. 이후 '금성과 무너 별자리가 자태를 뽐내는 곳에 있다'고 해서 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진화시에는 해발 1000m 이상의 산봉우리가 총 208개나 있다. 그 중 최고봉은 우의(武义, 무의)와 수이창(遂昌, 수창)의 경계에 위치한 니오테우(牛頭, 우도)산 주봉으로 해발 1,560.2m에 달한다.



형덴(横店, 횡점)영화테마파크 ↑

형덴영화테마파크는 형덴그룹이 1996년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13개의 영화 촬영 기지와 2개의 초대형 현대식 촬영 세트장을 마련한 곳이다. 광저우(廣州)거리, 홍콩(香港)거리, 명청궁원(明清宮苑), 진왕궁(秦王宮),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 화하문화원(华夏文化園), 대지선사(大智禪寺), 홍군장정박람성(红军长征博览城), 춘추 당원(春秋·唐園), 원명신원(圓明新園) 등 수천 년 역사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남북 지역 특색이 모두 집합된 공간으로 탄생했다. 저장성, 상해시, 푸젠성, 장시성 등과 차량 거리 4시간 이내인 교통관광 경제권내에 있는데다 볼거리가 많아 인기 만점인 여행지다.



쌍룡(双龙, 쌍용)동 ↑

국가중점관광명소인 쌍룡(双龙)동은 진화시 북쪽 근교에 위치한 진화(金華)산 서남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수풀이 우거지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산악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시가지에 비해 6도 낮아 여름철 피서와 레저 여행지로 유명하다.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특징으로 지면을 따라 흐르는 급류와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제갈팔괘촌(诸葛八卦村) ↑

란시(兰溪, 난계)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갈팔괘촌은 지금까지 발견된 제갈량 후손들의 최대 집단 주거지이다. '팔진도' 형태로 설계된 마을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고대 민가 모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중국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고대 문화 마을로 알려져 있다. 국가지정 관광명소인 '2강(신안강, 북촌강), 1호(천도호), 1산(황산)'과 연결되는 지점이어서 진화 여행의 필수 관광 코스로 여겨지며, 330번 국도가 이 곳을 지나 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스바위(十八瀑, 십팔와)관광지구 ↓

현재 성(省)급 관광명소인 판안(磐安) 스바위관광지구는 반안현 동북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두안산(端山)진에서 2.5km, 현 정부소재지인 안원(安文)진에서 55km 떨어져 신창천암(新昌穿岩) 십구봉(十九峰)과 인접해 있으며 반산 국도가 관광 지구의 가장자리를 지나 교통이 편리하다. 먼 옛날 지형의 변화가 왕성하고 하류의 흐름도 활발하여 '저중(浙中, 절중)대협곡'이라는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 냈다. 굽이굽이 흐르는 협곡은 차오어(曹娥)강의 발원지로 하곡(河谷)과 옥산대지(玉山台地)사이의 고도 차이가 200m 이상 벌어진다.



台州



타이저우(태주)_전통을 간직한 해안도시

중국 황금해안도로 중부에 위치한 타이저우(台州, 태주)는 바다와 명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하고 웅장한 지대를 자랑한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마주하고 숲과 들판이 서로 겹쳐 있어 '산의 당당함, 바다의 대범함, 물의 신비함, 사람의 온화함'을 겸비한 '산해수성(山海水城)'으로 불리는 곳이다. 예부터 문인과 선비들이 '해상명산(海上名山)'인 타이저우에서 은둔(隱世)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형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며 '항(港)·도(滬)·도(島)·만(灣)·경(景)·능(能)' 등의 자원이 풍부해 일찍부터 '동해의 문(东海之门)'이라고 불렸다. 강물이 도심의 가로세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이른바 '수향의 운치(水乡韵味)'가 감도는 강남의 옛 도시다. 수천 년 역사적 전통을 간직하고 전해져 온 유석도(儒釋道, 유교·도교·불교)의 유래가 깊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문화(和合文化)'를 지향하는 '화합성지(和合圣地)'다. 바다의 세찬 파도, 신비로운 산과 수려한 강물, 수면에 비친 수많은 등불, 빛과 그림자가 흐르는 타이저우에서 특별한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텐타이산(天台山, 천대산) ←

텐타이현 성곽 북쪽에 위치한 텐타이산은 남서쪽으로 셴샤링(仙霞岭, 선하령)과 연결돼 있고 동북 쪽으로는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주산군도)와 멀리 접해 있다. 닝보(宁波), 사오싱(绍兴), 진화(金华), 윈저우(温州) 등 4개 도시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차오어(曹娥, 조아)강과 용(甬)강의 분수령이다. 주봉인 화딩(华顶, 화정)산은 해발 1,098m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장관을 이루고 현암, 절벽, 폭포가 많기로 유명하다. 오래 전부터 '불종도원(佛宗道源)·산수신수(山水神秀)'로 중국은 물론 해외에도 명성을 떨친 곳으로 1988년 중국 국무원으로부터 국가중점관광명소로 승인 받은 후 1992년에 '저장성 10대 관광명소'로 선정됐고 2015년 전국 AAAAA급 관광지구로 선정됐다.

선선취(神仙居, 신선거) ↓

중국에는 산이 많다. 히말라야 고원부터 뿔어 내려온 산맥은 대륙의 한복판까지 이어진다. 상하이를 둘러싼 저장성에도 산 자락이 펼쳐져 있다. 그 산자락 속, 신선들이 머물렀던 신선거가 있다. 신선거의 이름은 이곳을 찾은 복승의 황제가 절경에 넋을 잃고 '신선이 살 만한 곳'이란 뜻을 담아 새 이름을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혹은 이곳에 대해 장자계(張家界, 장가계)의 기이함과 화산(華山)의 험준함, 태항산(太行山)의 웅장함, 황산(黃山)의 수려함을 고루 갖췄다고 표현한다. 신선거를 오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걸거나 케이블카를 타는 것. 산마루에서 우거진 숲으로 거슬러 들어가는 길은 평탄한 산책길과 같이 트레킹 코스로 제격이다. 코끼리의 코를 닮았다는 상비폭(象鼻瀑), 끝없이 이어진 계단 등 산길을 따라 걸다 보면 산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다천다오(大陈岛, 대진도) ↓

타이저우(台州)만 남동양면에 위치한 다천다오는 상하다천(大陈) 등 29개 섬으로 구성된 저장성의 '바다 낚시터'다. 밤이 되면 고깃배의 등불이 하나 둘 불을 밝히며 장관을 이룬다. 오래 전부터 '동해명주(东海明珠)'로 불렸던 다천다오는 산과 바다가 일체를 이루고 물과 하늘이 같은 색채를 이루는 절경을 보여준다. 푸른 산, 웅장한 암석, 신비로운 동굴, 파란 바다, 평탄한 백사장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다. 무엇보다 연평균 기온이 16.7도로 일년 내내 날씨가 온화하고 해산물도 풍부해 관광과 레저, 낚시, 해수욕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환상의 섬이다.



湖州



후저우(호주)_ G60 과학창신 중심 도시

후저우(湖州, 호주)는 창장(長江, 장강) 삼각주 중심구역 27개 성의 하나로 항저우(杭州)만 대완(大灣)구의 핵심 도시이자 G60 과학창신 중심 도시다. 동쪽으로 자싱(嘉興), 남쪽으로는 항저우(杭州), 서쪽으로는 텐무산(天目山, 천목산), 북쪽으로 타이후(太湖)와 마주보고 있다. 특히 호수를 사이에 두고 우시(无锡), 쑤저우(苏州)와 마주 보고 있는데, 호수와 하천에 둘러싸인 지역답게 도시 이름 역시 호수에서 유래했다.

후저우의 지형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형상으로 서쪽 지역에 산이 많다. 지역 내 가장 유명한 산으로 텐무산이 있는데, 정상 높이가 1,587m에 이른다. 텐무산 정상에는 마치 하늘의 눈과 같은 형태의 마르지 않은 연못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해발 1,000m 이상의 봉우리가 15개나 있어 대자연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모간산(莫干山, 막간산) 관광지구 ↑

더칭(德清, 덕청)현에 위치한 명산 모간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명소로 푸른 대나무, 맑은 샘, 흰 구름이 어우러져 '청량한 세상(清凉世界)'이란 극찬 받는 곳이다. 청나라 말 서양인들의 피서지였던 곳으로 베이다이허(北戴河), 루산(庐山), 지공산(鸡公山)과 함께 중국 국내 4대 피서지로 꼽힌다. 장제스의 별장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근대에 축조된 세계 각국의 237개의 별장이 있어 '근대건축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난타이후(南太湖, 남태호) 관광 휴양지 ↓

난타이후는 후저우시 북부 타이후 남안에 위치한 국가 지정 관광명소다. 난타이후 주변에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다'를 주제로 한 삼림죽해(森林竹海), 청산벽암(青山碧岩), 계천폭포(溪泉瀑布), 호광산색(湖光山色) 등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문화와 수향의 민속문화를 접목해 호산탐승(湖山觅胜), 순고탐유(寻古探幽), 석림야취(石林野趣), 몽리수향(梦里水乡)으로 독특하고 특색 있는 휴양지를 조성하고 있다.



난린구전(南浔古镇, 남순고진) →

난린구전은 장수성과 저장성 두 도시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남송 때부터 상인들이 모여들어 경제가 발달한 곳으로 지금은 국가 지정 관광명소로 호젓한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명청 시대부터 수 천 년 세월을 견딘 다리와 전통 가옥들이 최고의 볼거리다.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중국 전통 건축물은 서양의 건축양식과 조화롭게 융합된 형태여서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전통 문화를 간직한 건축물들과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운치 있는 물길을 따라 한적하고 느긋한 힐링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안지(安吉) 대나무 박물관 ←

안지(安吉)현 내에 있는 안지 대나무 박물관은 1200ha(약 360만 평) 규모의 대나무 테마 박물관이다. 대나무 숲 관광을 비롯해 대나무 문화 테마 체험, 대나무 문화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문화 공간이다. 대나무 향을 맡으며 꼬불꼬불 숲길을 따라 오르면 발 아래 펼쳐지는 대나무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숲 한쪽에는 중국 국보인 팬더가 귀여운 몸짓으로 여유롭게 노는 모습이 보인다. 대나무 숲길 산책 외에도 쪽배를 타고 호수를 거닐거나 향긋한 차(茶)를 맛볼 수도 있다.

구청(菰城, 고성) 관광지구 →

우싱(吴兴, 오흥)구 룡왕산(龙王山, 용왕산)로에 위치한 후저우 구청 관광지구는 성 외부 20만㎡, 성 내부 8만㎡인 국가 AAAA급 관광명소다. 관광지구 안에는 후박물관(湖博博物馆), 연화장(莲花庄), 혁명열사 천잉사(陈英士, 진영사)의 생가, 비영탑(飞英塔), 비영공원(飞英公园) 등이 있다. 시간의 흔적이 깃든 정원을 거닐거나 고탑을 오르면서 다채로운 문화적 향연을 즐길 수 있다.



嘉興



자싱(가흥)_ 중국 고대 문화가 탄생한 물의 도시

자싱(嘉興, 가흥)은 예부터 '어미지향(魚米之鄉)', '실크지부(絲綢之府)'로 불릴 만큼 자원이 풍부해 저장성 경제의 요충지였다. 자연이 어우러진 '물의 고향'으로 아름다운 원림과 푸른 강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도시 특유의 문화역사적 향취가 물씬 풍긴다. 대표적 관광지로는 고색창연한 소도시 우전(烏鎮, 오진), 천년 마을 시탕(西塘, 서당), 바다와 인접한 호수 난베이(南北, 남북)호, 강남의 대부 시웬(西園, 서원), 풍광이 아름다운 지우룽(九龍, 구룡)산 등이 있다.

자싱은 물의 도시다. 동쪽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는 첸탕(錢塘)강, 북쪽은 타이후(太湖, 태호), 서쪽으로는 텐무(天目, 천목)산의 호수와 접하고 있다. 또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경항대운하가 도시를 가로지른다. 바다와 강, 호수와 산이 자싱의 곳곳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시탕(西塘, 서당) ←

시탕(西塘)의 옛 이름은 시에탕(斜塘)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대 오월시대의 문화를 보존한 천년 수향 고진(古鎮)이다. 강남의 6대 고진 중 하나이며, 고대 오월시대 문화의 발원지 중 하나다. 춘추전국시대 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접전한 곳으로 '오근월각(吳根越角)'과 '월각인가(越角人家)'로 불린다. 당(唐)·송(宋) 시대에 이미 마을이 형성됐다. 당나라 개원(開元) 시기에는 강을 따라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물에 의지하며 살기 시작했다. 남송(南宋) 때부터 마을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장이 생겨났고 원(元)나라 때는 점차 읍내가 형성돼 상업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명(明)·청(淸) 시대를 거치며 강남지역의 수공업과 상업의 요충지로 발전했다. 시탕에는 수천 년 전 인류가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해 온 흔적들이 곳곳에 간직돼 있다.



우전(烏鎮, 오진) ↑

통상(桐鄉, 동향)시에 위치한 우전은 장쑤(江蘇), 저장(江浙), 상하이(上海)가 만나는 진싼자오(金三角, 금산각) 지역과 항저우(杭嘉湖, 항가호) 평원복지에 자리잡고 있다.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에서 60km, 상하이(上海)에서 106km 떨어진 곳이다. 우전(烏鎮)은 예부터 '중국 최후의 침수인가(枕水人家)'로 불리며 7,000여 년의 문명사와 1,300년의 건축사를 자랑한다. 전형적인 중국 강남의 '수향 고진'으로 풍부한 자원과 세련된 문화로 유명하다. 2001년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개방한 동산(東槎, 동책)관광지구는 2km의 관광 산책로를 비롯해 동산엣거리, 관첸(觀前, 관전)거리, 하변수각(河邊水閣), 낭막(廊棚) 등으로 조성돼 있다. 서산(西槎, 서책)관광지구는 서대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와 인접해 있고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와 통상(桐鄉)시 시내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다. 동책산이 관광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서산은 비즈니스 관광, 레저, 휴양을 위주로 한다. 약 9,000m에 달하는 수로와 72개의 옛 다리는 모두 중국 고진 중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다. 명·청시대 건물을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서산(西槎)엣거리는 그 길이가 1.8km에 달해 산책하듯 천천히 걷다 보면 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난후(南湖, 남호) →

난후는 항저우의 시후(西湖, 서호), 사오싱의 동후(東湖, 동호)와 더불어 '저장(浙江) 3대 유명 호수'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난후는 동, 서 두 개의 호수로 나뉘는데, 두 호수가 마치 원앙의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원앙호(鸞鴦湖)라고도 불렀다. 예부터 '가벼운 안개가 섬을 스치면 산들바람이 곧 불어올 것이다(輕烟拂渚, 微風欲來)'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하다. 난후는 수려한 풍광뿐 아니라 중국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혁명 기념지이기도 하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1959년 난후혁명기념관을 건립했다. 연우루(烟雨樓)앞에 정박해 있는 난후화방(南湖畫舫, 남호화방) 유람선을 분떠 만든 것은 물론 호심도(湖心島)에 난후혁명기념관까지 세워 연우루에 중국공산당 '일대(一大)'의 역사자료를 남겼다. 1991년 7월, 후빈(湖濱)에 덩샤오핑(鄧小平)이 홀 이름을 직접 지은 난후혁명기념관 신관(新館)이 들어섰다.



舟山



저우산(주산)_ 1,390개의 섬으로 이뤄진 해상도시

중국의 유일한 군도이자 해상도시인 저우산(舟山, 주산)군도는 1,390개의 섬이 끝없이 넓은 바다에 흩어져 있다. 바다, 성곽, 섬, 항구가 어우러진 풍광을 비롯해 해양문화와 불교문화가 조화를 이룬다. 저우산에서는 바다 레저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우산에 거주 중인 현지인들과 교류해볼 것을 권한다. 저우산은 동쪽으로 갈수록 바닷물이 푸르고 순박한 시골 정서가 진해져 대도시의 번잡함이 없다. 새벽에 현지 어민을 따라 고기잡이를 하거나 저 멀리 세워져 있는 등대를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저녁이 되면 백사장을 찾거나 아예 텐트를 치고 누워 별들을 보는 것도 좋다. 산바람, 바닷바람, 파도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등이 모여 색다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타산으로 알려진 불교성지海天佛国(海天佛国) '푸뉘(普陀, 보타)산'도 꼭 가봐야 할 여행지다. 산과 바다가 맞닿아 있고 섬들이 마주하고 있으며 꽃과 나무가 밀집해 있고 사찰 사원들이 즐비해 힐링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푸뉘(普陀, 보타)산 ↓

푸뉘산은 산서성 우타이(五台, 오대산, 사천성 어메이(峨嵋, 아미)산, 안휘성 지우화(九华, 구화)산과 함께 중국 불교계 4대 명산으로 불리며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교화시키는 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경치가 온화하고 독특해 '인류의 제1청정지'로 불린다. 산석림목(山石林木), 사탑애각(刻寺塔崖), 범음도생(梵音涛声) 등 모두 불교계의 신비로움이 가득하다. 섬 주위로는 바다의 흰 포말이 일고 바다 위로는 뭇단배가 활보하면서 특별한 풍경을 선사한다. 푸뉘산 내의 수많은 명승고적들은 모두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어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둥지다오(东极岛, 동극도) →

둥지다오는 사실 섬이 아니다. 바로 하나의 진(鎮)이다. 둥지진에는 마오즈후(庙子湖, 묘자호)도, 칭방(青浜, 청빙)도, 황싱(黄兴, 황흥)도, 동푸산(东福山, 동복산)도 등 네 개의 유인도가 있다. 둥지다오(东极岛)군은 저우산군도의 최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름 그대로 중국 전 지역에서 첫 서광이 비치는 '동극'이다. 때문에 동극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일출을 봐야 한다. 소박한 어가(漁家)의 특색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이 즐비한 곳이다. 청정지역에서 햇살, 벽해(碧海), 섬초(岛礁), 해산물 등을 즐길 수 있다.



딩하이(定海, 정해)고성 ↑

고성(古城)이라고 하기에는 청색 옹회암 옛 거리로 조성된 구역에 가깝다. 성 안에는 명·청시대 중대거리, 서대거리, 동대거리, 시수농(柴水弄), 유방로(留方路) 등 역사적 거리가 잘 보존돼 있다. 이 중 후진(后晋)시대 천복5년에 창건된 '옹주(翁洲) 제1의 고선림(古禪林)'으로 불리는 조인사(祖印寺) 건축물은 정교한 용봉이 새겨져 있으며 푸뉘산으로 향하는 도장이다. 청(淸)나라 강희(康熙) 28년에 건립된 어서루(御书楼)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각돼 남다른 품격을 갖췄다. 사방이 녹음으로 덮여 있어 수려한 풍경을 이루고 건물 내부에는 강희(康熙)의 어필로 쓰인 '딩하이산' 편액과 강희제(康熙帝)의 초상 등 중요 유물이 보존돼 있다. 정해(定海)는 유명한 아편전쟁 외에도 항왜(抗倭)와 항청(抗淸)의 역사적 유물이 남아 있는 군사 요충지였다.

아편전쟁유적공원(鸦片战争遗址公园) ↓

유적 공원 안에 아편전쟁 기념관, 3총병(三总兵) 기념광장, 백장제사비림(百将领词碑林), 항영전사장병고분군(抗英阵亡将士古墓群) 등 총 4개의 주요 구역이 있다. 이 중 저우산 아편전쟁 기념관은 아편전쟁유적공원의 본 건물로 정해(定海)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방어전을 다룬 역사적 유물과 사진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Tour Information

저장성의 기후

저장성은 지역은 아열대 계절풍 기후대에 속하며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봄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 변화가 심한 편이다. 여름은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오랫동안 이어지며 가을 날씨는 온난하고 건조한 편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북부 지방일수록 다소 춥게 느껴진다.

가장 추운 겨울 날씨인 1월 평균 기온은 2~8°C에 머무르고, 한여름인 7월의 평균 기온은 27~30°C이다. 연간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1,000~1,900mm에 이르는데, 초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늦여름에는 잦은 태풍이 찾아온다.

적당한 여행시기

저장성은 4계절의 특성이 뚜렷한 지역으로 특별히 여행 적정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1년 내내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느낌으로 여행하기 좋은 지역이다. 특히 봄 꽃이 만발하는 계절인 3~5월에 저장성을 찾는다면 가장 좋은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만약 초여름과 늦여름에 저장성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장마에 대비한 우산과 우비 등을 챙겨 갈 것을 권한다.

저장성 항공노선

항공편	시간	노선	항공사	운항주기
CA140	화요일 14:35	인천-항저우(杭州)	에어차이나	주1회
9C8626	금요일 15:15	인천-닝보(寧波)	춘추항공	주1회
BX369	일요일 09:30	인천-닝보(寧波)	에어부산	주1회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인천-원저우(溫州)	티웨이항공	주1회

중국 여행 출입국 정책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1부
-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여권용 컬러 사진 1장
- 3) 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

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중국 대사관 비자센터 문의)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6층	02-750-9600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해운대아이파크 C1 5층	1670-1888
광주	광주시 북구 금남로136 교보생명 누문동빌딩 7층	062-529-1810
제주	제주시 노형동 720-1번지 하나빌딩 502호	064-742-1811

발행처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
02-751-9355

기획 정진철 부센터장

편집 중앙일보s

디자인 책읽는다락방

아트디렉터 김동범

인쇄 삼화인쇄

발행일 2022년 4월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 202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재가공을 금지합니다.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 등)의 저작권은 중국 저장(浙江)문화관광마케팅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배포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詩畫浙江